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<목 차>

1. 신규 상장법인 분기·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신설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김영진
	담당부서 (과)	공정시장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이윤수		연락처	02-2100-2681
	과장	박재훈		이메일	youngsmile @korea.kr

정책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신규 상장법인 분기·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신설					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자본시장법 제160조제2항				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1.9.3.~10.13.				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근절대책('20.10월)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('21.1월)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○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어 개선이 필요				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·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								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><thead><tr><th colspan="2">유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th>의견 수렴방식</th><th>의견내용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상장회사 등</td><td>-</td><td>입법예고</td><td>-</td></tr>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투자자 등</td><td>-</td><td>입법예고</td><td>-</td></tr></tbody></table>	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피규제자	상장회사 등	-	입법예고	-	이해관계자	투자자 등	-	입법예고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														
피규제자	상장회사 등	-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투자자 등	-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	
9.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규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시 확대를 통해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				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			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											
	11.비용편익 분석(정성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편익) 신규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시 강화로 투자자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○ (비용)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음																		
기타	11.일몰설정 여부	X																		

〈조문 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<p>제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출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제159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(제1항에 따른 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) 이내에 그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·분기 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·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대부분 신규 상장법인*의 직전 분·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

* '18년 신규 상장 49사(이전·재상장·합병상장·스팩상장사, 1분기 상장사 제외) 중 41사 (83.7%)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

- ☐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☐ 현행 유지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,
- 상장 직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정보와 상장 이후 처음 제출하는 분·반기보고서간 시차가 있어 합리적 투자판단에 결림돌
 -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분·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상장협, 코스닥협, 거래소, 금융연구원, 자본연구원 금융감독원 등	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1.14일 /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)	제도개선안에 반영
투자자 등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	진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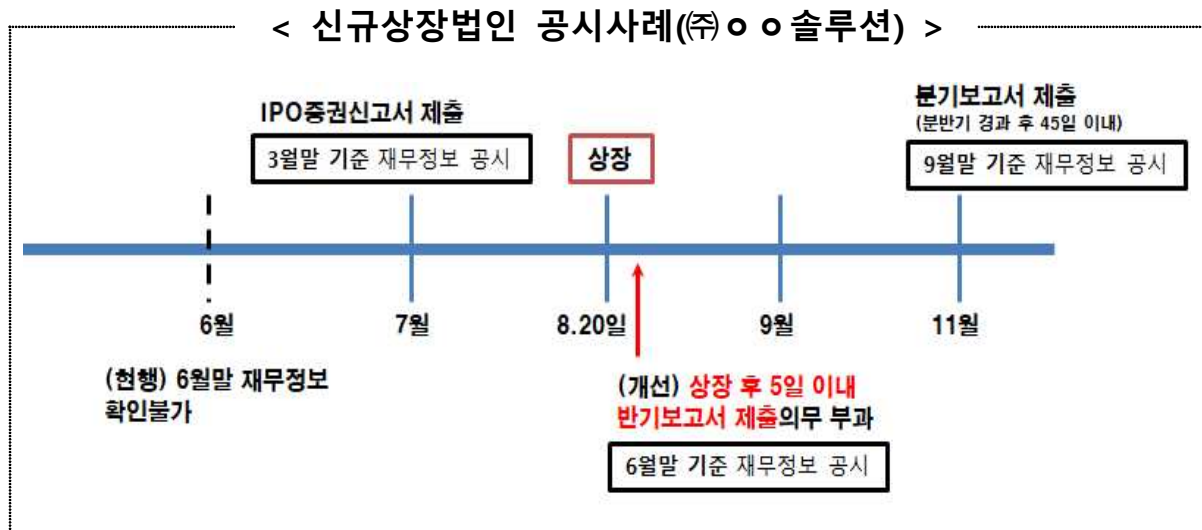
3. 기대 효과

- 공시 사각지대 축소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기업공시는 상장기업 등으로 하여금 증권·유통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
 -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상장 시기에 따라 6개월 간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이 발생 가능한 상황
 - 이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



- (규제수단)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현재도 이미 상장 직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
 - 해당 법인이 직전 분·반기 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전 분·반기 보고서 제출의 예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시 규제수단 적절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 설정 여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X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☐ 현행 자본시장법 제159조제3항

-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(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인 경우 그 제출 기한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)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되,
 -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☐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분·반기 보고서는 기재출중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과 대동소이하므로 피규제자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- 해당 규제는 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의 안정적 투자기회가 확대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☐ 행정적·재정적 집행가능성

-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☐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,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·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
 -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,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는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'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'을 발표('21.1월)하였음

2. 향후 평가계획

- ☐ 신규 상장인의 발행·유통공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점검할 계획

3. 종합결론

- ☐ 금번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